

이건희를 아낀다면 강준만처럼 '이건희와 삼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이건희 시대》 강준만 지음 | 인물과 사상사 | 366쪽 | 값 12,000원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려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등이 있다.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나는 국내 저서는 되도록 기피하는 편에 속한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내 독서경험이 그렇게 만들었다. 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는데,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진 것들마저 국내 저서는 한결같이 수준 이하였다는 것이 내 평가다. 아니, 베스트셀러일수록 그 수준은 형편없었다. 대통령이 열심히 읽었다는 책들도 내 눈에는 수준 이하로 보였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으며, 당연히 내 독서는 국내 저자가 쓴 책을 기피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내 독서행태를 강하게 질책하고 근본적으로 바뀌게 한 것이 강준만이 저술한 책들이다. 그 중에서도 《이건희 시대》는 특히 읽어볼 만한 책으로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의 내용은 서문의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그 윤곽을 보여준다. “당위가 아닌 현실만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건희 시대’다. 이걸 가치평가를 담지않은 채 담담하게 하는 말이다.”(7쪽) “‘이건희 모델’이 모든 기업들은 물론, 국가 차원의 이상적 표준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 모델의 정체를 따져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걸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걸의 실제 권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걸 양지로 드러내놓고 사회적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8쪽)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강준만이 쓴 책은 거의 모두 그렇지만, 이 책 역시 대단히 과학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일반적인 국내 저서들과는 다르게, 저자의 일방적이고 관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엄정한 사실(事實, fact)에 입각하여 기술한 것이 돋보인다. 이를 위해 쏟은 저자의 노력, 그의 독서량이 부러울 정도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술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저자가 서문에서 직접 밝힌 “한국 사회의 모든 조직과 집단의 문제가 다 그런 식이다. 일방적인 지지와 일방적인 반대만 있다. 중간적 입장은 매우 희귀하다. 양극단의 전선(戰線)이 형성된 ‘전시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전시체제’에서 ‘내부비판’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건 이적(利敵)행위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굶아서 터질 때까지 내버려둔다는 게 사실상 철칙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5쪽)는 구절이 이 책의 성격을 대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누구보다 이걸이 가장 열심히 읽어야 할 책인지도 모른다. 삼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이견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가득찬 것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일방적인 찬양은 흔히 신뢰도를 떨어뜨리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신뢰도를 더욱 높인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실제로 이견회의 '본질주의 경영', '질 경영', '암묵지 경영', '기록 문화', '디자인 경영' 등을 높이 평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견회는 그간 입이 닳도록 '도덕성, 인간성, 신뢰성 회복'을 역설해 왔다. 이견회 비판자들은 이견회의 진심을 의심하면서 '쇼'의 혐의를 제기하겠지만, 그건 결코 입에 발린 괜한 말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분노를 토해 가면서 '도덕성, 인간성, 신뢰성 회복'을 부르짖어 왔다." (11쪽)고 밝혔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견회에 대해 한없이 호의적인 지식인들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이견회와 삼성을 진실로 생각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이견회 없으면 쓰러질 삼성이라면, 이견회에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게 진정으로 이견회와 삼성을 아끼는 게 아닐까?" (186쪽)라는 생각도 담았다. 따라서 이견회에게는 다소 가혹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만고의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반 독자들이 입을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견회와 삼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이 책은 필독서라고 해야 한다.

다만, 경제학적 견지에서는 상당수 구절들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따져보자. 우선,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89년 630만 달러에서 2003년 14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국내 기업들의 '묻지 마 중국 이전'과 그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다" (303쪽)고 썼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이다.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국민소득 5,000달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을 뿐, 국민소득 2만 달러나 3만 달러를 견뎌줄 산업분야에서는 생산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올해 수출은 4년 전인 2001년보다 두 배나 늘었는데, 진짜로 "제조업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만약 '대중국 직접투자'를 언급하려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에 200억 달러를 넘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야 했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가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몇 차례 단정했는데,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국내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

은 최근의 빈부격차 악화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해 왔지만, 빈부격차가 악화된 진짜 원인은 외환위기에 있었다. 이런 사실은 빈부격차의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빈부격차가 악화되었지만, 그 뒤로는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던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에 빈부격차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부진이 장기화함에 따른 결과일 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빈부격차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이것은 빈부격차 악화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빈부격차가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큰 것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1980년대까지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체했던 데에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장기적인 경제정체를 벗어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처방을 사용했을 뿐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상대적인 경제변영을 불렀다. 반면에, 1990년대 이후 진보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했던 독일이나 프랑스는 실업률이 10퍼센트를 넘나드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경제난은 향후 이 나라들의 빈부격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가 장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할 때에는 빈부격차는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 경제위기를 겪거나 경제난을 장기간 겪을 때에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 호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반면에,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는 해고를 당해도 못 사는 사람이 먼저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빈부격차는 커지는 것이다.

그 밖에 과거 독재정권이 장기기간의 대중세뇌를 통해 신화화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업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등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으나, 긴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서 생략한다. 다만 강준만은 '정치 과잉, 경제 과소'를 강조하면서도 경제의 운동원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만은 지적해 두고자 한다. **▶**